

< 컬렉터가 사랑한 세기의 작품들 >

정윤아 (홍콩 크리스티 스페셜리스트)

4. 데이비드 호크니: 영국의 국보급 화가가 된 영원한 소년

David Hockney (B. 1937)

드로잉, 유화, 사진, 디지털 회화, 판화 등 각종 매체를 넘나들며 끊임없는 실험을 통해서 새로운 유형의 독자적인 화풍을 구축한 영국 출신 화가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존경 받는 생존 화가 중 한 사람이다. 그림의 주제 역시 초상화, 정물화, 풍경화를 폭 넓게 아우르며, 추상과 구상의 요소 모두를 한 화폭에 자유자재로 담아내는 테크닉이 뛰어나다.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면모에 있어서 생존 화가 중에서 단연 독보적이라 할만하다. 스케치를 토대로 컴퓨터 기술을 도입한 대형 풍경화로 자신만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점 또한 높이 평가된다.

1950년대

브래드포드 미술대학(Bradford Art School)를 졸업하고, 왕립미술대학교(Royal College of Art)에서 회화 전공. 졸업 작품 경연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고, 수석 졸업을 할 정도로 학창 시절부터 뛰어난 실력을 인정 받음. 이 시기에는 사실주의 화풍을 기반으로 하여 표현주의적인 붓질의 우울한 느낌의 어두운 그림들을 주로 그렸다.

1960년대

1960년, 테이트 미술관에서 열린 피카소 회고전을 보고 큰 영향을 받아 다양한 화풍의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기로 결심. 이 결심처럼 1960년대 그의 화풍은 폭 넓은 주제와 스타일을 선보인다. 특히, 1963년부터 시작한 '두 명의 초상화(double portraits)' 연작은 호크니 전작 중에서 매우 중요하게 평가된다. 1964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L.A.로 여행을 갔다가 이 곳에 정착하면서 '수영장(pool)' 연작을 시작하는데, 이 지역의 밝은 햇살과 화창한 날씨가 화폭에 반영되면서 화풍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한다. 빛의 굴절, 따듯한 공기와 온도 등을 담아내는 탐구가 반영되면서 '수영장' 연작은 독특한 스타일을 창조하게 되고, 이 연작은 앞으로의 호크니 작업 전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개인적인 삶에서도 캘리포니아 이주는 큰 이정표가 되는데, 1966년, U.C.L.A.에서 Peter Schlesinger를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한다. 이후, 그는 호크니 그림의 주제로 많이 등장하게 된다.

1970년대

1971년, 열 살 가량 어린 연인, 피터가 다른 사랑을 찾아 결별을 선언하자 호크니는 극심한 이별의 고통을 겪게 된다. 1972년, 마음의 상처를 달래기 위해 피터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 '예술가의 초상: 두 인물이 있는

수영장(Portrait of an Artist: Pool with Two Figures)'를 그리기 시작한다. 작업에만 매진하여 '두 명의 초상화' 연작 중 최고로 꼽히는 작품이 완성된 것. 이 작품은 '수영장' 연작의 요소와 '두 명의 초상화' 요소가 혼합된 유일한 그림이며, 기하학적 추상과 풍경화가 조화롭게 결합된 점, 과거 거장들 작품으로부터의 영감, 테이트 미술관, 폰피두,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등 대형 회고전의 대표작 이미지로 반복적으로 사용된 점, 여기에 유명 컬렉션 소장 이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2018년 11월, 크리스티 뉴욕 경매에서 9천만 달러(한화 약 1,000억 원)에 낙찰된 바 있다. 이로써 호크니는 생존 화가 중 가장 높은 경매 기록을 가지게 되었다. 1970년대를 관통하면서 1960년대에 시작한 '두 명의 초상화' 연작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켰으며, '수영장' 연작을 종이 작업 등으로 확대하면서 다채롭게 전개.

1980년대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포스터, 무대 디자인 등을 담당하면서 무대 디자이너로서의 역량을 과시. 또한 이 시기에는 폴라로이드 사진을 이용한 사진들과 더불어 콜라주 기법을 도입한 다양한 사진들을 선보임. 어린 시절부터 사진에 관심이 많았고, 늘 수 많은 사진 작업을 통해서 대상을 연구하는 등 그림에 사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던 호크니는 이 시기부터 사진 콜라주를 독자적인 영역으로 확대 전개함. 이외에도 클로즈업 초상화와 추상적 요소가 다채로운 원색들과 함께 파노라마 형식으로 펼쳐지는 대형 풍경화 작업을 동시에 전개.

1990년대

1991년 초, 카메라 루시다(Camera Lucida)라는 도구를 이용한 드로잉을 발표한 이래 1990년대를 관통하면서 지속적으로 작업. 19세기 초에 앙그르(Jean-Auguste-Dominique Ingres, 1780-1867)가 당시 발명품이었던 이 도구를 사용하여 세밀한 묘사를 하였으리라는 가정 하에 초상화 드로잉을 탐구. 이처럼 호크니는 과거 거장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들과 교감하고 그들로부터 영감을 얻음. 1993년에는 '그것이 내가 보는 방식 (That's the way I see it)'이라는 저서 발간. 화가로서만이 아니라 이론가로서의 면모 과시. 또한 작은 스케치에서 시작하여 이를 격자 무늬 형태로 확대 복사하는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서 여러 개의 캔버스에 이루어진 대형 풍경화 작업을 선보이면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스타일을 구축. 이 시기에도 초상화, 정물화, 풍경화, 무대 디자인 등 다양한 작업을 함께 진행하면서 각 분야에서

2000년대

평생 사진과 회화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였으며, 2001년에는 자신의 탐구를 집대성하여 과거의 거장들이 어떻게 도구를 활용하여 그림을 그렸는지를 파헤친 '명화의 비밀(Secret Knowledge: Rediscovering the lost techniques of the Old Masters)'이라는 책을 내기도 함. 1964년 이후, 캘리포니아와 고향 지역을 오가며 작업하던 호크니는 1999년, 어머니의 죽음 이후, 고향에 정착한다. 2006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과 함께 아침에서 석양 무렵 등 다양한 빛의 모습을 담아낸 '울드게이트 숲(Woldgate Woods)' 연작을 통해 고향 지역의 풍경을 다룬 풍경화를 선보였다. 이를 더욱 발전시켜 2007년에는 '물가의 더 큰 나무들 (Bigger Trees Near Water)' 를 그렸다. 이 작품은 자크-루이스 다비드의 '나폴레옹의 대관식'을 보고, '울드게이트 숲'에서 그리던 풍경화를 이러한 대형화로 옮겨보자는 영감에서 시작. 실제 전시에서는 50개의 판넬로 구성된 유희를 한 쪽 면에 걸고, 디지털 복제화를 나머지 다른 두 면에 걸어서 연출. 이러한 독특한 전시 연출 역시 평소 자신의 그림을 복제하여 걸면서 실제 회화와 비교하여 보기를 즐기던 호크니의 탐구심이 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